

생태관광에 대한 소고

김 원 학
일간보사

들어가며

최근 들어 주5일제의 정착과 관광에 대한 국민인식이 변화하면서 생태관광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환경단체, 여행사 등에서는 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법률상 처음으로 등장시킨 이래 해양수산부의 습지보전법, 산림청의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생태관광을 명시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2000년부터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관심이 크게 높아져 강화도 강화리, 강원도 양구군, 경기도 양평군 명달리, 군산 나포마을 등이 생태마을을 표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동이나 순천시 등에서도 생태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나 환경단체가 갖는 관심에 비해 관광업계나 국민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환경부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2009 자연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교육 교재'를 보면 (주)하나투어인터내셔널이 여행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의 66%가 생태관광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 자연경관 감상이나 다른 연계관광코스에 대한 매력으로 여행상품 구매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생태관광 형식만을 빌린 채 생태관광의 원칙과 지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생태관광에 대한 몰이해로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하는 관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태관광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현재 각계에서 논의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 생태관광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나은 생태관광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립공원 대상 생태관광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생태관광을 '개념 철재, 습지, 화석 등 생태계 우수 지역의 자연 및 관련 문화자원을 해설과 체험을 통해 관찰, 향유하는 개별 또는 소규모 단체 관광'이라고 규정하고 1단계로 내년까지 45억 원을 들여 지리산, 태안, 북한산 등 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

봐야 한다. 국립공원에는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으로 인해 극심한 도로정체가 벌어지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북한산과 계룡산 국립공원 등 도심 근교 명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했다.

자료를 보면 2007년 1~10월 18개 국립공원 탐방객은 모두 260여만 명으로 2006년에 비해 5%가 증가했다.

서울시민이 자주 찾는 북한산은 760여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을 찾은 등산객은 170여만명으로 2006년에 비해 62%나 늘었다.

다도해해상과 덕유산은 각각 100여만 명과 126만여 명이 찾아 각각 83%, 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셋길출입과 쓰레기 투기 등 올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적발한 위반행위는 2008년 기준 8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은 300여건에 이른다.

휴가철 국립공원은 매년 탐방객들로 인해 국립공원 입구와 인근 도로가 심한 정체를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지만 교통체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처럼 교통체증 등으로 국립공원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관광객을 더욱 끌어 모으겠다는 정책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도 무분별한 개방보다는 오히려 탐방예약제와 같은 생태계 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점은 생태 친화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의한 생태관

광의 소규모 관광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생태관광에 대한 지침에서는 관광지내 수용능력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광지, 보전지구의 이용은 자연파괴가 최소화하도록 시설, 공간, 인원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지침은 관광의 질, 만족을 보장하면서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인원수를 입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하고 있다.

관광지에 많은 사람이 찾으면 자연파괴를 가져오므로 주위지역에 새로운 관광지조성, 휴식공간을 개발해 그곳으로 관광객이 찾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분산을 통한 환경에 대한 피해를 분산시키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생태관광과 보호구역

전남 순천시는 지난 3월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 예약제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순천만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순천만을 방문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도 순천만이 개발압력에서 벗어나려면 시민의 자발적 헌금이나 기부를 토대로 자연유산을 사들여 이를 영구히 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260만여 명이 다녀간 순천만은 2640만여m² 규모로, 25만여m²의 갈대밭이 조성돼 있고 200여 종의 조류와 120여 종의 염생식물, 멸종위기 조류 12종이 서식하고 있다.

순천시의 순천만 탐방 예약제 추진 발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태관광이 결코 생태관광 대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탐사총회가 열린 창원을 비롯해 경남권을 대상으로 습지 실태를 조사해 발간한 낙동강보고서 또한 생태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200여개 습지 조사를 진행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조사대상 200개 습지 가운데 보전상태가 양호해 '상'으로 분류된 곳은 69곳에 불과했다. 74곳은 '중' 평가를 받았고 48곳은 '하'로 분류됐다.

낙동강 배후습지의 경우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매립 행위가 잦았다. 밀양시 삼랑진에 있는 9곳은 현재 습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변모했다.

산지습지는 골프장 건설이나 임도건설 등이 산지습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안습지의 훼손도 마찬가지로여서 거제시 산촌간석지와 울주군 진하늬는 매립으로 상당부분이 훼손됐다. 창원 주남저수지 등 호수 형태의 습지는 농약 유입이나 낚시객에 의한 쓰레기 투기와 같은 오염원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2년 강원도 철원군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송읍 하갈리 133 속칭 아이스크림 고지(해발 219 m)를 탐조관광지로 개발키로 했다고 취소한 사례는 보호구역에 대한 생태관광 개발이 갖는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철원군은 조망대와 주차장(1000평), 휴게소(200평), 진입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철새탐조 관광사업이 오히려 세계적인 희귀조류이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류와 기러기류, 독수리 등 생태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철원평야 한복판인 아이스크림 고지에 조망대가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차장 진입로 휴게소의 건설과 차량 행락객의 발길이 철새의 서식지를 파괴해 결국 철새의 멸종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순천만을 생태관광의 모범사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만은 이미 관광객이 포화상태인 곳이다. 관광객이 포화된 곳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진행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해 분산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새로운 관광자원은 훼손되고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생태관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사라지는 생태관광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호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관리가 필요하다.

지리산에서 추진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제목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보아요'는 생태관광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궁금해진다.

생태관광과 주민소득

정부는 호텔 개발 등 대규모 개발위주의 기존관광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생태관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 생태관광객은 하루 평균 100불을 지역에 남기고 가는 반면, 패키지 관광객은 50불, 크루즈 관광객은 5센트만을 소비 하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생태관광에서 주민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료를 보면 설악산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2007년 탐방객은 346만 명으로 2006년에 비해 29%가 증가했다. 반면 공원 내 숙박시설 이용자는 전체 탐방

객 가운데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탐방객의 거주지별 분포는 수도권이 63.3%, 강원권이 13.5%를 차지했다.

탐방객이 증가했지만 숙박시설 이용자가 감소한 현상은 차량이용형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장소는 잠시 들르는 곳에 불과하다. 잠자리가 가까울 이유도 없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그리고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국 16개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만2758명을 대상으로 2008년 국내 여행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여행객의 교통수단은 자가 차량 이용 비율(숙박여행 70.2%, 당일여행 65.8%)이 가장 높았다.

여행지와 소비지역이 다른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통수단의 재편이나 관광객 유인을 위한 체험공간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을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관광지 인근에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은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자원을 발굴해 수익원을 창출하고 내·외부 역량을 연계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된다.

또 주민들의 단순참여가 아닌 경영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서비스업에 대한 마인드와 노하우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매결연, 회원제 사업, 이벤트 개최 등 도시소비자 및 각종 단체와 도농교류 네트워크를 형성도 한 가지 방법이다.

주민은 물론 행정의 의식과 관행도 바뀌

어야 한다. 단시간에 성과를 거두려는 시도나 단발성, 전시성의 대규모 사업 대신 지역의 자체 역량을 축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생태관광지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관광으로 얻는 수익은 짧은 행사기간 단순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생태관광과 주민참여

현재와 같이 단위시설 설치나 단지중심의 관광개발로는 지역사회와 경제적·사회적인 연결성을 갖기가 어렵다. 과거 지역개발과 동일한 행정 주도의 사업선정, 계획수립과 집행이 진행될 주민참여는 공청회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주민들 스스로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이 없고 열정과 참여가 부족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편익의 불확실성과 투자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의식이 높지 않아 지나치게 경제적인 편익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마케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광에 필요한 경영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외부지원은 주민들의 자발성을 저해할 수 있다. 자연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도 우려해야 한다.

주민참여는 공청회, 협의회 참여 등 과정적인 참여는 물론 민박운영, 농특산물 판매 등 사업적 참여가 필요하다.

관료와 전문가 집단, 외지 컨설팅업체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계획을 배제한 지역주민들의 사업계획 추진주체의 조직화

와 리더의 양성이 필요하다. 주민조직의 효과적 구성과 운영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과를 좌우한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결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주민참여과정은 능력개발 과정이기도 하다. 주민조직의 효과성은 리더의 리더십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리더를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단순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은 생태관광의 온전한 목적한 부합되지 않는 단기적인 처방인 만큼 장기적인 포석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교육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태관광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 주최 생태관광에 참가한 사람들이 갯벌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관광버스를 타고 100~200명씩 찾아와 조개를 잡는다며 갯벌을 망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갯벌 생물들이 관광객들의 호기심에 전에 없던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뒤 관광객들로 훼손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관광객들이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광이 추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태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서 생태관광요령, 규정을 제정해 관광객들에게 숙지시키는 나라가 많다.

자연환경보전협회 교재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3%가 생태관광과 관련한 개선사항

으로 우수한 자연행태해설(또는 전문가) 육성을 꼽았다는 점은 상기할 만하다.

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소중히 생각하며 소중한 만큼 지키고 보전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교육을 통해 생태관광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의 관광은 단순한 관광에 그칠 우려가 큰 것이다. 다만 해설가나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는 점이다. 생태관광을 위한 자연의 관리주체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생태관광과 광양 매화마을

섬진강 매화마을은 생태마을이나 생태관광이라는 말에 부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매화마을이 산수유마을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것은 그 곳에서 생산되는 매실 제품을 일 년 열두 달 판매할 수 있는 상설판매점이 있다는 것이다.

매화마을은 섬진강과 매화꽃을 보러 관광객들에게 매실로 만든 농축액이니 장아찌, 된장 등을 판매하면서 소득을 올린다. 대부분의 관광지가 토산물과는 크게 동떨어진 먹거리로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반면 관광상품을 그대로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주민들이 거두는 소득은 곧 또 다른 관광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주민 입장에서 상설 매실 판매점을 세움으로써 손님을 꾸준하게 유인하기 위한 노력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꽃 피는 계절이 아니어도 손님들을 끌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섬진강이나 재첩국과 같은 관광상품도 매화마을과 함께 부각되면서 관광객을 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돌산도 갯김치나 강화도 순무가 그랬듯이 다양한 먹거리를 지역의 문화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고,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면 대규모 경작이 갖는 병해나 충해의 문제점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음식문화 상품이 개발된다면 관광객을 분산시킴으로써 교통정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매화마을을 생태관광지로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고 오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생기고, 도로를 막고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입는 주민들의 피해는 막중하다.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넓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연훼손을 부른다. 치우치 않은 쓰레기는 주민들의 몫이다.

또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소득을 주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소득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인접 하동과 연계된 관광요인 다변화 등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만큼 다른 지역에서 생태관광을 추진할 때 모델로 삼을만하다.

나가며

생태관광은 결국 교육적인 관광이며, 양을 추구하지 않고 질을 추구하는 관광, 보기만 하는 관광이 아닌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이라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활동은 자연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환경훼손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관광으로 인한 환경훼손으로는 건축행위와

폐기물의 발생과 인간 활동 그 자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러한 훼손이 경관과 생태자원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

생태관광 부분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의 본질과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고 전반적 수요가 증가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는 측에서도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여행사에서도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여행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자연관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름만 생태관광으로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할 뿐이니 생태관광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생태관광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태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테크 등 훼손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생태탐방 행동법규인 '생태관광 수칙'을 올 상반기에 제정하기로 했으며, 관광객 집중으로 훼손우려가 높은 양구 대암산 용늪은 출입을 제한하고, 관광객 수의 제한이 필요한 지리산 칠선계곡은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특성, 지역문화 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을 생태관광 가이드로 활용, 지역내 전문직 일자리 창출하기로 하고 현재 325명인 생태관광 가이드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1000명 수준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에코가이드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고, 에코가이드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연수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주도 생태관광은 앞서 살펴봤듯이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으로 방향을 이끌어 나간다면 긍정적인 요소는 많다.

국제생태관광학회는 생태관광을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

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으로 정의한다.

생태관광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들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개념을 매번 검증해야 한다.